

“전주의 미래는 밝아질 것”... 박순중 부시장 이임

재임기간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마련 힘써

박순중 전주시 부시장이 지난 1년 7개월여 시간을 함께해준 모든 전주 시민과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임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제4대 박순중 전주시 부시장은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등 재난대책 상황임을 감안해 당초 이날 예정됐던 이임식을 취소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6개월간의 전라북도 공로연수를 거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박 부시장은 지난 2016년 11월 취임한 이후 재임 1년 7개월 동안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대상 생산성 평가 1위 △2017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 △도시의 흔적과 기억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및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추진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형 복지정책 정착 등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힘써왔다.

또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축제인 2017 FIFA U-

20월드컵과 제18·19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성공리에 치러내면서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전주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 부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주시 3,000여 직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모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박순중 부시장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3,000여 직원들과 더불어 사람 중심의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에서 일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전주는 한국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문화적 경쟁력이 최고인 도시로, 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도시이며 가능성과 자력을 가진 도시로서 전주의 미래는 분명 더욱 밝고 따뜻해지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 남원출신인 박 부시장은 지난 1985년 총무처 7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부장,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4대 박순중 전주시 부시장

/송호철 기자

임실읍 112타격대, 의경어머니회와 호국원 봉사활동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달 30일 112타격대 의경 휴무의 날을 맞아 의경어머니회 회원(20명)들과 함께 국립 임실호국원에서 봉사활동(태극기수거 및 묘역정소)행사를 가졌다.



이날 의경들과 어머니회 등 30여명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억 추모하는 뜻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중영 기자

임실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임실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노종택) 회원 30여명은 최근 시가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여름을 맞이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주민통합이 잦은 임실역에서 임실고까지 가로화단 잡초제거와 쓰레기 수거에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노종택 회장은 "임실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성 임실읍장은 "바쁘시기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에서 솔선수범해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산서면, 2019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산서면(면장 조규현)은 지난달 29일 산서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한병원)는 내년도 장수군 예산편성을 위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30여건의 사업 신청서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산서 주민들이 평소 생각하던 불편사항과 주요투자 사업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위원들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병원 주민자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산서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서 청문실, 실무현안 공유 교실 열어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피해자보호·지원 제도를 비롯 각종 실무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범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생계비, 위로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 전개 뿐만 아니라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 등 기타법정지원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궁금증 해소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청문 기능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 비위예방실천, 내부고객보호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김정아 순경은 "다양한 청문활동은 부서 간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으로 업무공유가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피해자 보호, 인권보호, 내부고객보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하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소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9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상반기 복지 허브화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하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읍시 전용 이웃돕기 모금 창구인 '행복바이러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위원 참석수당 일부를 기부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과 출장인들에게 '행복바이러스 모금'을 적극 알려 보다 많은 이들의 기부 동참을 이끌어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전북도 공동모금회 배분사업과 관련해 긴급구호사업 400만원을 확정했다.

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으로도 면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려운 부분을 세심히 살피는 복지 행정으로 면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 마을신문기자 출정식

전주시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은 지난달 29일 주민센터 2층에서 마을신문 기자 교육 및 출정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추진단 회원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신문 만들기 교육을 했다.

2018년 완산동 마을계획추진단은 서로 상생하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 나눔행사 사업 또한 전개할 계획이다.

완산동 김중태 마을계획추진단 위원장은 "이번 교육과 출정식을 통해 회원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마을신문 제작과 나눔 행사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호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